

화우의 방목과 조사료 확보로 1년 1산의 성공사례

한우개량부

부장 김동혁

본 기사는 일본화우 번식농가의 사양 기술을 소개하므로서 한우 사육 농가에 참고가 되도록 기재하고자 한다.

번식우 13두

일본 아오모리겐 쥬와뎅시 후까모찌
가구호 미다이지 씨

경영의 개요

위치 : 아오모리겐 남쪽의 산 본기다이지
작목규모 : 답 5.4ha, 산림 15ha, 전 20a
사육두수 : 18두(경산우 13, 미 경산우 2, 육성우 3)
연간 송아지 생산 두수 : 13 두
사료기반 : 사료포 70단보, 목초지 120단보
노동력 : 1.8인 (본인, 부인)
특색 : ① 방목경영(하산동리방식(夏山冬里方式))
② 우량후보우의 자가생산
③ 조사료 이용성의 제고
④ 자질이 우수한 번식우 확보

〈• 경영구조와 소 사육 경력〉

1. 지역의 특색

가구호 미다이지씨는 42세로 육용우 사육은 1956년에 부친으로부터 인계받아 20여년의 경험을 가지고 아오모리겐의 남쪽 국립공원 쥬와뎅호의 현관으로 되어있는 쥬와뎅 시에 살고 있다. 이 지역의 농업은 벼와 육용우의 복합경영으로 생산액의 비율을 보면 벼 60%, 야채 20%, 축산 20% 정도이다. 앞으로는 야채와 축산이 점차적인 증가가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다소의 변동이 있겠으나 벼, 야채 축산의 3가지 복합경영으로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이 지역의 기상은 여름철에도 태평양으로부터 저온을 동반한 편동풍에 의하여 작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냉해가 빈번하며 초상은 10월 18일, 만상은 5월 23일로 무상기간은 148일이고 초설은 11월

10일, 종설은 4월 11일, 강수량은 1,157mm, 년간 평균기온은 9.9℃이다. 이 지역의 육용우는 일본 단각종으로 이는 일본 재래남부소를 기초로 하여 명치 초년 이래 쇼오토후온종과의 교배로 육성된 것으로 옛부터 아오모리 이와데, 아끼다의 3현에서 사육되었다. 근년 북해도의 일부에서도 입식이 늘어나는 실정이며 또한 사육농가의 개량의욕이 높아지고, 우량 종모우에 의한 개량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한편으로는 초기조성도 이루어져 사양관리 개선에도 주목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조사료의 이용성이 높고 비교적 군사나 방목관리에도 강한점을 지시하게 되었다. 국민의 식육식성도 전골 일편도에서 스테이크, 불고기로의 변화를 시작하여 이에 부응하는 일본 단각종 우육의 수요는 한층 증가하고 특히 약령비육의 후보우 이용이 크게 높아졌다.

2. “하구보”씨의 경영구조

“벼와 육용우의 복합경영” 하구보씨의 경영은 주로 벼와 육용우이다. 벼의 단작으로는 봄과 가을의 농번기를 제외한 노동력에 여유가 있어 특히 겨울철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벼짚을 퇴구비로 상호보완을 위해 육용우 번식 경영을 시도하였다. 근처에는 넓은 목야가 있어 하산동리 방식에 의한 사육이 가능하여 노동력 및 사료공급의 조정이 원활하여 번식우 경영을 시도한 동기이기도 하다. 가구호 미다이지씨는 1989년 12월 18두의 소중 경산우 13두 미경산우 2두, 육성우 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생산된 송아지는 년 1산으로 평균 판매가격도 기타 농가의 2배정도 높은 값으로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다. 근처에 공동방목장이 있어 하산동리 방식의 사육이 가능했으며 사료포 70단보 목초지 120단보, 기타 70단보의 사료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우량 사료에 의한 송아지 별사육방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산동리 방식(夏山冬里方式)” 노동력은 가구호 미다이지씨 부부의 1.8인으로서 벼 5ha와 육용우 18두를 사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육용우 관리를 하산동리방식으로 조정하므로서 벼베는 시기에는 방목이 완료되어 육용우에는 거의

노력이 들지 않으며 또한 벼는 기계도입에 의한 성력재배로 전환하여 노동력은 거의 무리가 없다.
“논두렁 풀과 분뇨의 유효이용”

논 5.42ha의 논두렁과 농로변에 재배한 목초면적이 70단보로서 이것을 년 4~5회 예취하여 건초를 만들어 조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논에서 생산되는 벼짚은 10a 당 약 500kg으로 이를 조사료와 깔짚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부족하므로 근처의 2ha분을 퇴비와 교환하여 이용하고 있다. 분뇨는 논이나 사료포에 전면 환원하고 있으며 그외 조림한지 25년이 경과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가옥신축이나 우사의 증축 등의 경우에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3. 가구호 미다이지씨의 육용우 사육경력

가구호 미다이지씨의 집안은 조부의 대부분이 육용우(단각우)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가구호 미다이지씨가 철이든 1941년(당시 6세)부터 이미 5두를 사육하였다.

당시에는 자연방목지에 방목을 하였으나 입퇴목 시에는 매년 빠지지 않고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육용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갖겼었다. 1955년 이 지역은 쥬와뎅 집약농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하여 저어지종을 입식하게되어 낙농이 성행하게 되었다. 가구호 미다이지씨는 어릴적 부터 특별히 육용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 1956년에 농업고교를 졸업하고 부모로 부터 육용우를 인계받아 관리하게 된 아래 지금까지 번식우의 자질개량과 우량송아지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1967년 경부터 국가의 육용우 대책이 추진되어 이를 계기로 다두화를 시도하여 매년 두수를 증가시켰으며 1973년에는 축사를 신축하였다. 가구호 미다이지씨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옛부터 육용우(단각종)를 사육하여 아오모리겐 현내에도 산육능력이 낮은 소가 많이 사육되어 왔다. 자질이 우수한 소로 개량하여 송아지는 시장 평균가격의 2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며, 이와같이 자질이 우수한 번식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의 판매가 안정되어 1973년에는 우사의 신축과 함께 다두화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가구호 미다이지씨의 부락에는 현의 방역원인 수의사가 있어 가축의 치료뿐만 아니라 소의 사양관리 기술의 지도

및 새로운 기술, 질병발생 원인, 사료급여 등의 중요성 등을 지도하고 있다. 1971년부터는 현의 지도기관과의 접촉으로 번식기술, 사료급여 기술 등의 세심한 지도를 받고 그 위에 현의 가축품평회 등이 있는 때에 소를 출품하여 지도를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농가가 2~3두의 육용우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이들 농가들이 한곳에 모이면 소의 질병이나 불수태 등의 화제가 많이나와 연구검토를 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의 지도기관에 의한 축산기술보급사업, 지도자 기술육성사업 등에서는 약 20농가정도 그룹을 형성 조직하여 현의 축산시험장이나 현축산회, 보급소 등에서 사료급여법, 관리법, 송아지 별사육의 지도를 받고 각 농가의 개선점을 발견하여 서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기술의 특징〉

1. 산육능력우를 확보한다.

가구호 미다이지씨의 지역은 산간지로서 육용우의 다두사육에는 사료기반이 빈약하나 목야가 활용되고 발두렁의 풀이나 벗짚도 이용하여 사료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준 두수를 유지하면서 산육능력이 우수한 소로 전환하는 것을 제 1의 조건으로 하여 우량우만을 사육하고 있다. 확실히 1년 1산을 하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모두의 내용년한내에 되도록 많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모두는 능력과 외모의 우수한 계통우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선발하고 있다.

“얼굴과 갈비의 개장이 좋은소”

- ① 모두의 선발에 따라 수익이 많다는 점
- ② 모두는 장기간 사양하므로 그간의 사료절감이라 는 점
- ③ 조사료 이용성이 좋은 소라는 점에서 얼굴형이 좋고 얼굴폭도 넓으며 턱이 잘 발달된 큰소를 선발하고 있다.

“자질이 좋은소”

생산된 송아지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질이나 계통이 좋은 것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이 지방도 비육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일본 단각종을 육질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약령비육에 적당하므로 비육형태에 알맞는

후보우의 생산에 노력하지 않으면 유리한 판매는 어렵게 될 것이다.

“번식성이 있는 소”

1년 1산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체형적으로 배선이 충실하고 강하며 임신, 분만에 유리한 형질을 갖춘 소를 확보하고 있다.

“생시체중이 큰 송아지 생산”

일반적으로 초산우와 10세 이상의 노령우에서는 송아지의 생시체중이 크지는 않으나 가구호 미다이지씨의 경우 초산모우의 송아지도 30kg 이상의 생시체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산 모우를 체중, 끌격 등이 일정수준에 이르렀을 때 번식에 공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0세 이상의 노령우라도 생시체중이 큰 것은 후보우 때부터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 체형과 체격이 충분히 발육되어 있는 우수한 종모우를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2. 사양관리의 요점

“분만과 종부”

분만은 1월 초순부터 시작하여 4월 하순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분만후 60일부터 80일 정도에서 종부를 하여 수태를 시키도록 하고 있다. 분만에서 종부까지의 기간은 엔실리지, 목건초, 벼짚 등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함과 동시에 혼합 농후사료(밀기울+미강+배합사료)를 1일 3kg을 아침, 저녁 2회로 나누어 급여한다. 관리로서 겨울철에도 분만 1주전까지는 운동장에 보내어 충분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켜 순산에 노력하고 있다. 생시체중이 큰 것은 전술한바와 같이 종모우의 선택에 유의하면서 수태후 조사료를 포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운동, 일광욕을 충분히 시키기 때문이다. 농후사료는 자가배합하고 임신말기에는 특히 칼슘, 염분에 유의하여 개체별 급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료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엔실리지를 충분히 제조하여 사사(索飼)의 기간(12월~4월) 중에 급여하여 모우의 건강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분만후의 영양과 피로회복”

모우의 건강과 체력의 회복을 위하여 분만후 1주간 정도 맑은날 일광욕과 적당한 운동을 시켜 조사료 섭취가 좋아 지도록 하며 농후사료는 소의 건강 상태를 보아 가면서 급여하고 있다.

“조기 발정과 수태율 향상”

송아지의 생산은 100%를 목표로 하며 최저 90%를 확보하려고 최종 수태를 90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위해 사료급여를 고려하며 일광욕과 운동을 충분히 시켜 체력 회복을 증진하면서 조기 발정 발견에 노력하고 있다. 발정주기가 가까워 지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찰을 실시하여 소의 행동 및 사료섭취상태, 울음소리 등에 주의를 기한다. 종부는 발정후 10~1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1~2회 이내의 수정으로 수태하여 수정 회수도 평균 1.5회이다.

“조사료 생산”

목건초 생산의 경우 영양의 균형을 위한 양질의 풀 생산을 위하여 년중 질소, 인산, 칼리, 석회, 고토가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가 생산의 퇴구비를 가을에 10a당 2톤정도 사용한다. 5년 이상의 초지에는 석회(광물질 함유석회) 등을 시비하여 목초지의 노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엔실리지용 청애 옥수수는 사사기간에 충분히 급여하기 위하여 모우 1두당 0.7a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밭두렁의 풀은 면적에 환산하여 50a 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년 3회 예취하여 목건초로 이용하며 초종은 주로 오처드그라스이다.

3. 육성기술의 요점

옛부터 일본 단각종의 우량우 사육지역으로서 송아지 경매시장에서도 이 지방의 송아지 인기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우수한 혈통의 육우가 많고 능력이 아주 우수하였다. 현 단위 축산공진회 육우부문에서 참피온 우가 매년 이 지역에서 선발되었으며 가구호 미다이지씨도 소의 개량에 대한 열성도는 누구보다 높아 종모우의 선발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능력이 우수한 소의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송아지 육성의 성패는 분만전부터의 모우에 대한 사료의 급여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발육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여 분만후의 사료 급여에도 주의를 하고 있다. 송아지는 생후 40일경 부터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여 제1위의 발달을 촉진시켜 체적을 충분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생후 50일경의 송아지에 있어서는 발육촉진을 고려하여 혼합사료(밀기울 50% + 송아지 배합사료 50%)를 급여하고 있다.

4. 판매 송아지의 사사육성(畜飼育成)

생산된 송아지의 판매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기종부 - 조기생산 - 조기판매에 노력하고 있다. 송아지는 9월 상순~중순에 방목지에서 축사로 이동시켜 별사육(別飼育)으로 육성하여 발육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우량우 입식 등 자질개량에 의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번식공용 모우는 자가생산

자우로 하여 체형, 자질 등이 우수한 것을 선발 육성 한다. 또한 현내의 우량혈통우의 송아지로 혈통, 계통, 체질, 자질 등이 우수한 것도 선발 입식 육성 한다. 모우의 자질 개량에도 유의하여 우량 모우를 확보하는 한편 적합한 종모우를 선정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다. 이와같이 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 시장에서의 유리한 판매를 하고 있다.

〈표 1〉 사료작물의 작부체계

작물명	작부면적	용도	생산량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목초	120 ^a	건초	900kg	건초				수확	▨	▨	▨				
청애옥수수	70	싸이레지	7,000	생초				파종	△			▨	수확		
밭두렁풀	70	건초	600	건초				수확	▨	▨	▨	▨			

〈기술의 실제〉

1. 사료의 조달과 급여

사료의 급여는 표2와 같이 하고 있으며 하산동리 방식 때문에 사사의 기간은 10월 2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207일간이며 그 기간중에 필요한 자급 양질 조사료로서는 목초 청예 옥수수 밭두렁

풀 및 노변풀등의 증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벗짚을 확보하여 구입사료의 절감을 꾀하고 있다. 농후사료는 자가생산의 미강 이외에 배합사료 밀기울을 농협으로부터 구입한다. 매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송아지를 많이 분만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증사를 하여 분만후의 영양향상과 피로 회복을 돋고 조기발정을 하도록 노력한다.

〈표 2〉 계절별 사료급여표

사료명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급여일수	급여량
목건초및밭두렁풀	4kg									4kg			207	825kg
벼집	3kg									3kg			207	621
싸이레지	12kg									12kg			180	2,160
미강	300g									300g			90	27
배합+밀기울 50% 50%	3.5kg	15일	방목	20일						2.0kg			207	621
밀기울+송아지풀사료 75% 25%										2kg			70	140
목건초										포식			70	

주:550kg 의성우 1일량, 6~8개월경의 송아지

2. 번식성적과 생산자우의 발정성적

가. 번식성적

사료급여에 유의함과 동시에 겨울철에는 운동장을 이용하여 운동과 일광욕을 이행하기 때문에 분만 후의 발정도 매우 순조롭고 인공수정도 1.5회로 수태를 하고 있다(7두). 다른 모우(6두)도 종모우 센터로부터 종부시켜 전두수 임신 하였다. 그리고 “시찌고 축산농협”의 송아지 시장의 개시 일정(11월 중순)에 맞추어 종부시기를 앞당기고 방목개시전에 종부를 마친다. 그 결과 1년차는 354일, 2년차는 359일, 3년차는 360일로 거의 1년 1산을 하고 있다.

나. 종체성적

9월상~중순에 방목을 끝내고 사사로 옮겨 별사육을 하면서 부터 종체를 확인 한다. 이때 송아지의 일당 종체량은 생산 송아지 13두 평균 9.97kg로 대단히 높았다. 그리고 자가 생산 송아지는 생시체 중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데 암송아지 8두의 평균 체중은 35.7kg로 현 평균 송아지 체중에 비하여 0.4 kg이나 크고 수송아지도 5두의 평균체중이 4.1.2kg로 현평균 37.0kg에 비하여 무려 4.2kg이나 크다.

다. 생산 송아지의 판매

송아지의 판매 실적은 1974년의 가격 폭락인데도 시장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1975년, 1976년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나 유리한 값을 받고 판매 하였다.

3. 생리별 사양관리

가. 분만전기의 사료급여

분만전기(임신우)의 농후사료 급여는 번식 성우 환산 16두 평균 1일당 28kg로 사양표준으로 보아 DCP, TDN 모두 표준이상으로 급여하고 있다.(표 3 참조)이는 임신말기에 증사에 의한 분만 송아지의 증체를 도모하여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분만후의 사료급여

분만후 1주간이 경과되면 포유기의 사료로 대체하는데 이는 모우의 영양이 유량에 영향하여 송아지의 발육에 영향됨을 생각하여 분만후 모우의 체력회복을 위하고 조기발정과 조기종부를 시켜 12개월령에 다음 분만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러한 사료급여에 의하여 소의 질병도 전반적으로 적

고, 모두의 소가 건강하여 송아지의 발육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성우 1일 사료급여량

사료명	임신기	포유기
목 건초	4.0kg	4.0kg
볏짚	3.0	3.0
싸이레이지	12.0	12.0
미강	0.3	
밀기울	1.0	1.5
2종 혼합	1.5	2.0
계	DCP 0.629 TDN 6.706	DCP 0.72 TDN 7.416

주: 2종 혼합은 임신우는 옥수수주체 포유기는

옥수수와 어박→옥수수주체

4. 소의 선정과 육성 기술

가. 육성우의 선정

가구호미다이지씨는 번식우를 거의 자가생산 송아지로 확보하고 있으나 자가 이외로 입식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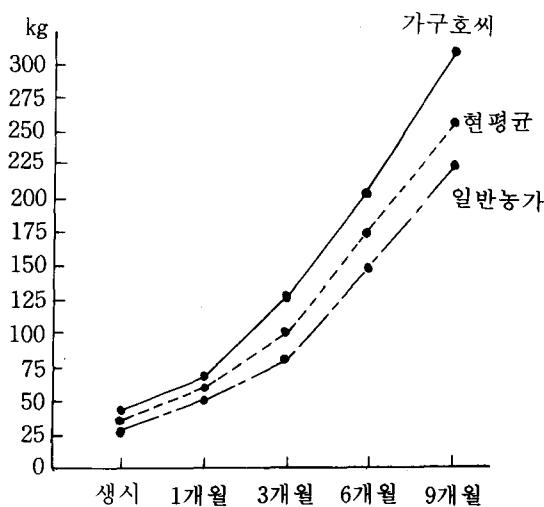
- ① 현의 인정 모우의 송아지 인것
- ② 종모우의 자질과 종모우의 지금까지의 후대 송아지의 발육상황을 체크하여 보아 우수한것
- ③ 분만 송아지의 1일당 종체가 우수 한것
- ④ 배선이 강직 한것
- ⑤ 소화기가 크고 갈비가 잘 벌어진것
- ⑥ 송아지는 펜히 방목을 한것으로서 지제가 충실 한것

그리고 자질에 관계되는 피모, 피부 등 모든 점을 관찰하여 입식 시킨다.

나. 송아지의 육성

송아지는 생후 50일경부터 양질의 조사료를 포식시키고 또한 농후사료도 밀기율 75% 송아지 배합사료 25%를 혼합 배합하여 포식 시킨다. 겨울철에도 운동장에서 모우와 함께 운동과 일광욕을 시킨다.

전술한바와 같이 1일당 송아지의 종체는 13두 평균 9.97kg으로 매우 양호하며 이는 일상의 사사시의 관리와 5월부터 9월까지 넓은 방목지에서 자유로운 운동과 목야에서의 양질의 청초 채식과 9월 중순부터 별사육을 하기 때문이다.



5. 일상시의 관리

“하산동리(夏山冬里) 방식의 관리”

하산동리 방식은 이 지방의 오래전부터의 사양 형태로서 방목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20일 까지이고 집약목아에 1일 성우 140엔으로 예탁한다. 겨울에서 봄까지는 송아지를 분만하고 포유등으로 체중이 감소된 소를 방목하는데 10월의 종목시 까지는 1일 800g 정도 증사하여 10월 하순에 사사 시킨다. 또한 송아지로 방목기간중에 1일당 900g 내외로 증체 한다. 사사기에 이르면 소는 임신말기에 들어가며 빠른 소는 12월경부터 분만을 한다. 반드시 초산 등으로 늦게 분만을 하는 소는 6월경에 목장내에서 분만하는 것도 있다. 대체로 소는 1월부터 3월에 집중적으로 분만을 한다. 육우 송아지 시장이 11월중 하순에 개최되므로 송아지는 늦어도 3월중에 분만하지 않으면 시장 판매가 불리하게 된다.

6. 자급사료의 확보와 재배관리

1972년부터 9두 이상의 다두화 연차 사육에 들어가 지금까지 조사료 기반 확보를 위하여 목초지 120a를 조성하여 1973년부터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밭두렁, 노변등의 목건초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70a의 사료포에서 청예 옥수수(엔실리지용)를 재배하고 있다.

7. 분뇨의 처리

가구호씨의 우사는 매일 깔짚을 깔아주며 매월

1회 한데 모아서 퇴비장에 쌓아두어 부패 되는대로 다음해 3~4월에 논, 밭에 운반하여 살포 한다. 오줌은 오줌통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아서 활용이 적은편이다.

8. 농업시설과 기계장비

가구호씨는 다두화를 위하여 한냉지에 적합한 우사를 신축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농업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육용우와 벼농사를 병행하여 즐겁고 확실한 경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벼수확기와 벗짚의 수확은 일기가 크게 좌우됨을 주목하여 “베-라”를 구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확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벗짚의 전면 사료화에도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금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가. 우사

현재의 우사는 모우사와 1973년에 신축한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우사는 오래되어서 관리면이나 환경면에서 문제가 있어 1~2년내에 따로 증축하여 번식 우사로서 1방1두 수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우사의 남쪽에 신축하여 우사와 우사간에 지금보다 넓은 운동장을 설치하여 충분한 일광욕을 시켜 발과 허리가 강한 소를 육성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나. 자급사료의 증산

수도 단작으로 사료기반은 약한 편이다. 최근의 구입사료의 고가에 대응하여 수익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급양질 조사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 라고 판단 된다. 목초와 옥수수의 비배관리를 개선하여 수량을 높임과 동시에 사료기반의 확대 밭두렁의 활용과 벗짚, 엔실리지 제조등 이용법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려고 하고 있다.

다. 방목기간의 연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목지는 표고 600m의 고냉지 이므로 춘추의 초생상태가 나쁘다. 봄에는 5월 15일~20일에 입목을 하며 가을에는 10월 20일에 퇴목하여 가을 농번기(벼 수확 작업)와 겹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까운 산림 15ha를 리산(里山) 방목지로 조성하고 춘추의 방목기간을 연장하여 사료비의 절감과 노동력의 조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라. 인공수정의 실시

이 지방은 아직도 방목중의 목우 종부가 행하여 지기 때문에 방목중의 종모우의 선택은 어려운 설정이다. 금후 인공수정이나 사사중의 종부(종모 관리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며 종모우를 선택교배 하므로 자질 개량도 증진 되고 사사중에 종부를 시켜 방목을 하면은 분만일을 단축하고 송아지의 발육을 촉진 할 수가 있다.

〈경영과 생활〉

가. 가족구성과 노동력

가족구성은 본인, 부부, 양친, 자녀3명 모두 7명이며 가구호씨는 42세로 활동이 왕성하다. 노동력은 부친을 합쳐 2~3명이고 본인과 부인으로 1.8명이며 가구호씨와 부인의 노동력이 주체로 되어 있다.

나. 생활

모친은 가사와 자가 채소를 가꾸며 수도단작지의 육우농가로서는 다소의 자가 채소밭을 갖고 있어 신선한 채소를 얻고 있는 것이다. 1974년에 현 축산 회의 경영진단을 받아 소의 관리기술 사료작물과

이용 및 경영면에 지도를 받았다. 진단후 부터는 매년 빠지지 않고 경영 송아지 생산, 종부, 분만, 사료급여 등을 기록하고 있다.

다. 경영수지

가구호씨의 생산과 경영수지 결산을 보면 수입으로 송아지 대금이 매년 360만엔 정도가 평균이며 소득률로 매년 42% 전후로 증대 되고 있다.

라. 금후의 방향

가구호씨의 금후의 확대 계획은 조사료 이용률이 높은 일본 단작종에 의한 번식성우 20두 정도를 번식경영으로 하고 두수보다 자질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 물론 체형, 자질, 산육능력, 육질 등에 유의하여 우량한 기초모우를 갖추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넓은 초자원을 이용하여 자급양질 조사료를 증산 활용 하는 것으로 경영의 안전을 도모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격이 낮은 생산 송아지에 대하여는 비육시켜 판매하는 것도 과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시 자급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추구하며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경영내용을 개선하고 수도작과의 관련된 노력을 더 한층 합리적으로 하고 싶고 여유 있는 생활을 이루고 싶다”고 강조한다.

※※

생활상식

◆ 특별한 생일의 이름

60 세	육순 (六旬)
61 세	회갑 (回甲), 환갑 (還甲), 주갑 (周甲), 화갑 (花甲), 화갑 (華甲)
62 세	진갑 (進甲), 진갑 (陳甲)
66 세	미수 (美壽)
70 세	칠순 (七旬), 고희 (古稀), 희연 (稀宴), 희연 (稀筵), 희경 (稀慶)
71 세	망팔 (望八)
77 세	희수 (喜壽)
80 세	팔순 (八旬)
81 세	망구 (望九)
88 세	미수 (米壽)
90 세	졸수 (卒壽)
99 세	백수 (白壽)

◆ 생일 인사말의 용례

돌	명길어라. 건강하게 커라 (자리거라)
손 아래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귀빠 진날 축하한다. 건강해라.
손 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생신) 축하합니다. 기쁘시겠 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본 회갑등 특별한 생일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습니다. 만 수무강하십시오. 더욱 강녕하 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손아래) 고맙네. 기쁘겠네. 장하네. 수고했네. (손 위) 기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녀	